

## 철도건설공사 실적기준 완화로 참여업체 동반성장 기여

— 공단, PQ 및 최저가심사기준 개정...  
원주~강릉 노반공사 첫 적용 —

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의 실적기준을 완화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원주~강릉 노반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터널분야 실적 인정 규모를 종전 1km에서 200m로 대폭 확대 ▲철도터널 동일공사 실적에 비개착식외에 개착식 실적 포함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및 미참여시 가·감점제를 2014년까지 연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 강화 ▲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사 개선(비계량평가→계량평가) 등이다.

공단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그간 철도건설공사 실적부족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건설업체들에게까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및 중소기업업체들은 대형 및 중견건설사들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원주~강릉 복선전철 용지보상 착수

— 6~10공구(둔내면~대관령까지) 공사구간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원주~강릉 복선전철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3월 30일 6~10공구사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공고를 한데 이어 4월부터는 공사구간 우선공사구간의 용지매수가 시작된다.

강원본부는 계획된 2017년 6월 준공을 하기 위하여는 공기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 장기간 공사가 예상되는 대관령터널 입·출구부분 등의 용지부터 우선 매수하면서 순차적으로 용지매수를 추진 할 예정이다.

차훈 용지부장은 "우선매수대상토지에 대해 3월 기초조사를 끝내고 4월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용지를 매수함으로써 5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철도 유휴부지 활용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 22개 업체 및 개인사업자 등 55명 참석 —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지난 2일 관내 23개소 113필지의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업체(2), 에너지업체(3), 운수업체(3), 유통업체(6), 창고업체(1), 태양열업체(1), 부동산업체(3) 등 총 22개 업체 29명 및 개인사업자 26명 등 총 55명이 참석하여 호남본부 관내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공단 담당자와 관심부지에 대한 개별상담도 진행되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관한 상담은 호남본부 재산관리운영부 ☎061-840-5053(전라선 담당), 5042(호남선 담당), 5045(경전선·광주선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 철도 유휴부지 활용설명회, 차별화전략 시도

— 영남본부, 찾아가는 Marketing 활동 적극 전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대구광역시, 창원시 등 영남지역에 있는 철도유휴부지 중 토지활용가치가 높은 철도부지(12개소, 105필지, 88,027㎡)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고속철도건설로 인한 부채상환 자원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업체, 지자체, 개인사업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타 본부와 달리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 현장을 선보여 큰 호응도를 얻어냈고 또한 설명회 종료 후에는 행정구역별로 상담 테이블을 마련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을 해소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지난 2일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부산·울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전화인터뷰(6분간)를 통하여 철도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해소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소상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금번 설명회 개최에 대한 우리 공단의 의지 즉,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부채상환 자원 마련에 기여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많은 국민들이 청취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차원 높은 설명회가 되었다.

한편 영남본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추가 발굴 후, '찾아가는 marketing'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높임으로써 국유지 가치제고 및 수익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본부 김상대 기자>



## 철도 유휴부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충청본부, 활용가치 높은 12개소 —

충청본부(본부장 김계웅)는 대전광역시, 아산시 등 대전·충청 지역에 있는 철도유휴부지 중 활용가치가 높은 철도부지(12개소, 212,260㎡)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일 민·관을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관내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토지·건물물 활용성 및 접근성이 뛰어나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의 1,000㎡이상의 부지로 물류창고, 주차장, 물치장, 상설매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상 유휴부지는 대전시(1개소, 20,571㎡), 계룡시(1개소, 14,551㎡), 아산시(2개소, 15,580㎡), 천안시(1개소, 5,878㎡), 예산군(2개소, 28,219㎡), 연기군(1개소, 24,022㎡), 청원군(1개소, 11,054㎡), 영동군(3개소, 92,385㎡) 총 12개소 212,260㎡이다.

충청본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명회 후 각 시, 군별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참석기관 및 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으며, 현장설명 요청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안내하고 해당기관 및 업체 방문을 통한 적극적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달 2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본부(재산관리운영부, ☎042-607-5081, 5097) 또는 본사(자산개발처 ☎042-607-4222, 4225)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본부 강인순 기자>



## 수도권본부 포상금 기부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르는 봉사 실현

— 4월 열린마당에서 국가재산 수익증대 공로로 포상금 전액 기부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 시설운영처는 숨은재산찾기로 국가재산 수익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일 열린마당에서 받은 포상금(50만원) 전액을 본부에서 지난 5년간 봉사활동을 해 온 관내 서울시 용산구립 장애우 주간보호센터에 기부하였다.

서울시 용산구립 장애우 주간보호센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다운중후군, 정신지체우 등의 장애우를 주간동안 위탁 보호하는 기관으로 수도권본부는 매월 1회(12년은 격월) 장애우들과 서점, 놀이공원, 지하철 타기 등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오고 있다.

시설운영처 직원들의 노력과 마음으로 받게된 포상금을 미력하나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됨에 4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모두에게 행복의 미소로 기억되는 하루였다.

<수도권본부 김원식 기자>

